



(Ⅳ) 크리스천의 생활

□ 제 1 회 □

L: 오늘은 크리스천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회개와 위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흔히 크리스천이 된다 또는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천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며 무엇이 크리스천다운 점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생활에 앞서서,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K: 요즘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독교적인 생의 목표를 말하면, 으레 그 기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고 반문해 오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 또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회 생활을 관습적으로 하게 된 것 등, 주로 외부적인 것애다가 기준을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겉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만 그 기준을 찾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역시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성격을 잘 알고서 그 신앙이 나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가를 스스로 물어 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 기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맨 처음 말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말의 뜻을 캐 낸다면, 그것은 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겠지요. 마치 단절되었던 국교가 정상화되어서 대화를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만 집착되었던 생활에서 한 번 초월자를 우러러 보고 대화를 하는 관계를 가지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일을 새로운 빛에 비추어서 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회개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K: 역시 신앙을 말할 때에 먼저 회개를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회개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겠지요. 무슨 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일을 잘못했다고 느끼는 일과 내 전체 생활 태도와 인생관을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각도로 재검토하는 일에서부터 비로소 신앙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L: 종래의 생활에서부터의 전환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위기 의식이 따르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K: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하니 생각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위기에 대한 경험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인 철학자가 22 세 때에 이런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밖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느꼈다. 모든 현상을 설명할 새로운, 절대로 틀림없는 법칙을 내게 쏙 내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런 지진과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 집안의 하녀(下女)였었는데 결국 아버지와 이 하녀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문제가 아주 새로운 것으로 해석되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위기 의식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어 볼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키에르케고르의 심오한 실존주의도 이런 심각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생각되어진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L: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회개의 의식에는 이런 위기 의식

4. 크리스천의 생활

이 따를 것인지 문제입니다만, 신앙 생활을 통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과 이 위기 의식과는 구별해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기 의식이라는 것을 자기가 서 있는 땅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은 자신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이겠지요. 술 취한 사람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만, 결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고민 때문에 동요를 한다는 것과 위기 의식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K: 그 점에서 우리는 가끔 위기 의식을 인간적인 고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어에서 '심연'이라는 말을 'Abgrund'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떠나서 분리된다'는 'Ab'와 대지, 기반이라는 'Grund'가 붙은 말입니다. 자기가 말을 붙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던 땅바닥이 떨어져 나가는 데 지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위기의식이겠지요.

L: 거기에 반해서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한다면 극작적(劇作的)인 고민, 이를테면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느끼는 문화적인 고민이 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위에서 오는 고민,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아서 느끼는 도덕적인 고민, 그리고 세계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고민 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도 결국 위기 의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겠지요.

K: 아마 위기라는 것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순간'(瞬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찰나적으로 엄습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서 시작되어 결과가 생겨진다고 추리를 내리거나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위기라는 것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습격해 온다는 데 그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위기를 지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 위기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를 회피하거나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기가 나를 찾아와서 꼭 붙잡는 순간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무슨 운명적인 것과 혼동하기 쉽지요.

K: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순간적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위기로 보는 입장이 바로 신앙 생활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반대로 이 위기를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을 하거나 이에 굴종한다는 것이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운명주의적인 생활 태도는 불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명주의적인 생활은 한 마디로 해서 태만의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K: 그 태만이란 말에 관해서 생각 납니다만, 하아비 콕스가 쓴 '하나님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자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나태'라고 했습니다. 종래에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에게 대한 반항이니 불순종이니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하아비 콕스는 인간이 인간다운, 즉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본래적인 인간성을 포기하는 생활을 나태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꽤 흥미 있는 관찰이라고 봅니다.

□ 제 2 회 □

L: 지난 시간에는 신앙 생활에서 회개한다는 일과 위기의 의식, 그리고 운명적인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크리스천의 생활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볼까 합니다. 지난 번에 신앙 생활에서는 회개하는

4. 크리스천의 생활

일이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 생활에서는 믿고 따르다는 면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K: 신앙 생활에서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서 믿고 따르다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믿는다는 일과 따르다는 일이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믿는 생활과 따르는 생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교에서 믿는다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말해야겠습니다.

L: 그 점에서 신앙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자연 과학자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의 내용을 삼는다는 것은 자연 과학자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뒤로 미루고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나게 하는 겸허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자연 과학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지요. 그가 회람적인 과학 정신이 '자연은 진공(眞空)을 싫어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의심을 품고, 자연에도 진공이 있다는 실험을 하여 가지고 회람적인 자연관을 뒤집어 엮었는데, 그 연구 태도는 마치 겸허한 신앙적인 태도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독단을 신앙과 혼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 태도라고 봅니다.

K: 그 점에서 역시 신앙 생활은 보는 생활이 아니라 듣는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 10 장 17 절에서 "신앙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보는 생활에서는 초월자에게서부터 내게로 향해서 하나의 위기로서 들려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의 생활은 늘 독단적이며 내용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따라서 늘 고독한,

나쁜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 관계에서 유리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 장 41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고 경고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듣지 않고 보는 것으로만 진리로 생각하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L: 역시 보는 생활에서 듣는 생활로 전환하는 것도 위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위기는 이러한 역설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믿고 따르는 것을 늘 보는 견지에서만 생각하면 차연히 바리새교인과 같은 율법주의나 독단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K: 보는 생활에서 듣는 생활로 전환할 때에 비로소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의 ‘지성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성의 한계를 아는 데서 진실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재미 있는 예화가 있는데 회람의 케변학자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트로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우아트로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서 케변을 배운 다음, 사례금의 반밖에 지불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만 나머지 반액은 선생에게서 배운 케변으로써 재판에 이기면 지불하겠읍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자기 제자이던 에우아트로스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스승이었던 프로타고라스가 먼저 변론하였습니다. “나는 재판에 이기나 지나 이 사람에게서 나머지 반액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에 이기면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지더라도 이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기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내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서 에우아트로스가 대꾸했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이기나 지나 이 사람에게 반액을 지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만일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진다면 재판에 이기면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졌으니 지불할 수가 없지 않

4. 크리스천의 생활

느냐?” 이것은 논리학 시간에 흔히 듣는 예화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과 ‘재판’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각기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데 양쪽의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꾀변을 꾀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진지성이라는 것은 지성을 초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L: 참 재미 있는 예화입니다. 그 점에서 생각납니다만, 야스퍼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성과 실존’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는데 이성은 언제나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데서 늘 잘못을 저지른다고 했지요. 몽테뉴의 말을 빌린다면 지성이라는 것은 마치 낚이나 초와 같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연장처럼 마음대로 만들어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성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고 따른다는 생활이 보는 것보다 듣는 데 있다고 하면 이런 지성의 한계를 아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K: 도대체 지성의 힘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인간의 자아 문제와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한 지성의 힘은 믿을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이 자신의 문제와 결부되면, 그리 간단하게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점에서 가브리엘 마르셀의 ‘문제의 인식’과 ‘신비의 인식’에 관한 생각은 펍 흥미 있다고 봅니다. 마르셀은 문제라는 말 ‘problem’은 앞으로 던진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둘에다가 둘을 합하면 빛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앞에 던져진 것이어서 지성은 아무런 거침 없이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신비의 문제는 자신을 침식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즉 죽음이라는 문제는 내 앞에 던져진 수학 공식과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조건을 침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신비의 문제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자는 말하기를 “죽음을 무서워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죽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지요. 이런 사상을 프랑스의 아랑이란 사람도 그의 ‘행복론’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랑비가 내린다. 밖에 나가서는 우산을 펼치면 그만이야. 구질구질한 비가 온다고 푸념은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나 눈이나 바람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고 하지 않는가?” 이처럼 죽음을 하나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 사람을 침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같이 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L: 그러므로 죽음이나 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고 사는 현대인은 과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희쁨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겠지요. 17 세기의 위대한 지성인 파스칼의 말이 기억 납니다. “의심할 것은 의심하고 확실할 것은 확신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말 가운데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넘는 것이 무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모르면 이성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다”고 했지요.

K: 오늘 이야기는 좀 사상적인 면에서 다루었지만, 요컨대 현대의 크리스천의 생활에 있어서는 믿고 따르다는 생활이 단순히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인식하는 생활, 이성의 한계를 아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사는 생활이 바로 믿고 따르는 생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제 3 회 □

L: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서 우리가 이

4. 크리스천의 생활

성을 존중히 하지마는 그 한계를 깨닫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좀 그 이야기에 계속해서 크리스천 생활의 성격을 좀 더 토론해 볼까 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성의 한계를 강조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을 다루어 본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라고 보는데, 신약성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한을 보면 64 회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활한 주님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열쇠(key word)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 뜻을 해명하는 일이 꼭 중요한 일 같아요.

K: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비유로 이 말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표현했고(요 15: 1-17), 구약에서는 포도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에는 어떤 신비적인 융합, 즉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합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즉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L: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신비주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아마도 회랍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 때문이겠지요. 사실 이런 사상은 초대 교회 시대에도 꼭 유행되었던 모양인데 요즘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신비적인 경향으로 이 말을 이해하고 있음은 꼭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K: 이 문제는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하던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둘에다 둘을 합치면 넷이 된다는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존재를 좀 먹어 들어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한다면, 죽음이나 쉰 같은 가장 리얼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도 '죽은 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포자기의 생활로 몰아 넣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이때 나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요 9:4-5)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문제 인식이 우리 생활 태도를 좌우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 그러니까 자신의 주체적 문제 의식이 앞서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요즘 문학에서 말하는 ‘앙가주망’(Engagement)이라든가 기독교의 참여 장전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문제 의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서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마르셀의 말대로 한다면, 앙가주망이, 곧 나뉘 이 세상 공동 생활 속에 던져주고 그 속에서 문제를 찾게 해 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뉘 규정 짓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in Christ’의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여를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감동시키는 말은 아마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골육의 친척을 위해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셔널리즘이라든가 민족 위주의 감상적인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역설적인 모습이란 것이 생각하는데,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생활의 역설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4. 크리스천의 생활

L: 지금 골육의 친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 또는 골육의 친척이라는 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골육의 친척에 대한 사랑 따위의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에 자주 나오게 되는군요. 우리는 이웃이라는 것에서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면 우선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는 존재를 정적(靜的)인 것,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 또 그 이웃이 고정된 존재냐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이웃에 대한 관계의 양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의 양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간성(humanity)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이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K: 역시 그 문제는 거꾸로 소급해서 올라가면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든가, 그 관계의 양상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과연 내가 인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문제 삼아야겠다고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성에 대한 근본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참된 의미의 이웃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서로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다 이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휴우머니티 곧 인간성 또는 인간 됨이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만 비로소 나에게 이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L: 요즘 듣기에는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도, 새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운 인간성(new humanity) 또는 새로운 생활 스타일(new style of living)이라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러한 문제도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급변하는 사회, 특히 기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양가쥬망을 한 크리스천의 생활 스타일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꼭 중대한 문제로 들고 나선 모양인데요.

K: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형이상학이나 철학적 인간학을 모두 지양하고서 새 국면에 선 참여의 인간을 말하는 모양입니다만, 과연 그것만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관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은 성서적인 인간관에다가 과거의 사상적인 이해와 체계를 통합하여 그것이 현실의 도전 앞에서 견디어 내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는데, 요즘 서구 신학이나 교회 일부에는 이러한 것이 다 소용이 없다, 다만 현실에 참여하는 그 속에서 신적(神的)인 것을 찾자 하여, 신의 죽음이니 세속화니 하는 문제를 꼬집어 내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의 사상적인 것을 지양하는 방법이 있어서 너무 급진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 4 회 □

L: 오늘은 크리스천의 생활 목적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참여의 생활은 결코 현실과 타협하여 이리저리로 휩쓸려 다니는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참여를 위한 참여의 생활을 하기가 쉽거든요. 삶의 목표 없이 덮어놓고 현실 참여를 말한다는 것은 꼭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생활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진다고 보는데요.

K: 참여가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에 휩쓸려 간

4. 크리스천의 생활

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더우기 요즘은 ‘상황 윤리’ 문제가 떠돌는데,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산다는 식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의 생활에는 그만큼 더 뚜렷하고 강렬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L: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 차례 규정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들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K: 남에게 그리스도를 알린다, 또는 증거한다는 것을 크리스천 생활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직접으로 말로 전도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대와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크리스천의 생활,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써 증거하는 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L: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통한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크리스천의 자아 문제가 제일 앞서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생활을 통한 증언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자아 발견을 무슨 규율에 비추어서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명상과 사색을 함으로써 자아를 찾는다는 그 따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란 말은 한자로 표현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인데, 역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람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열려진다고 봅니다. 내가 나를 이렇이러한 사람이라고 혼자서 아무리 규정해 놓아도 구체적으로 남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K: 자아는 대화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자아 발견을 동한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과거나 미래에 비추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자아는 늘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의 긴장 속에서 일정한 자리에 고착되지 않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를 현재의 순간 속에서 포착한다는 일은 꽤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 자신을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긴장 속에서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아 내는 일은 결국 불교의 무아(無我)의 경지를 발견한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시간과 공간 속에 깊숙이 구속을 받고 있으면서 대립과 긴장 속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는 데서, 대화를 통해서든지 인간 관계를 통해서든지 창조해 나가는 데서 자아의 중심을 찾아야겠지요.

L: 입센의 작품 중에 피어진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마치 양파와 같아서 자신을 찾으려고 껍질을 벗겨 보면 결국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자아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 자기인지는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 현대의 자아 상실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K: 자아 상실이란 말을 또 이런 면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도 결국 인간과의 관계의 양상에서 사는 것이니까 자기의 자유가 결국 이런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지 않고서는 자유로 느

4. 크리스천의 생활

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우습다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인 자유가 어떤 구체적인 자유로 전락한다는 데 있고, 비극적이란 이유는 자아라는 것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찾지 못하고 자신을 물질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실정에는 무언가 비애감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따르는 이러한 우습고도 슬픈 두 면을 참말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생활에서 원숙한 자아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L: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활 목적이 인간의 자아 발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한다는 처음의 주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중간점에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자아 의식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저 유명한 마틴 루터가 ‘크리스천의 자유’에서 말한 것처럼 “크리스천은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 동시에, 만인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역시 역설에는, 아까도 비쳤읍니다만, 대립과 긴장이 있는 법입니다. 대립과 긴장 관계가 없는 데서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으니깐요. 오직 크리스천의 생활 목적에서만, 이러한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긴장과 대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 대립과 긴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도 나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비로소 대립과 긴장을 근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삶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긴장을 하나의 충돌이나 자기 모순으로서만 생각하고 여기에 견디어 내지 못하면 결국 분열중에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즐줄 끌려 가는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면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데,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수단으로 남을 물건처럼 전락시켜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 거짓의 생활, 거짓 이웃, 나아가서는 거짓 자아를 찾게 되는 이유이겠습니다.

L: 거짓이란 말의 회랍어 어원이 '미끼'라는 뜻인 것을 보면, 역시 미끼를 써서 남을 낚아 치우는 것이 거짓 인간 관계라 할 수 있겠지요. 미끼로만 이용하는 인간 관계에서는 참된 자아를 찾아낼 수 없고 또 이런 미끼로써 존재하는 이웃에 둘러싸인 사람의 생활은 늘 고독하고 생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K: 한 마디로 해서, 크리스천의 생활 목표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이로써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 5 회 □

L: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천의 생활의 목적 의식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늘 긴장, 대립과 조화의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 점을 좀 더 다루어서, 크리스천 생활에 있어서의 공동 의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역시 긴장, 대립이라는 말을 좀 더 풀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려만 사랑한다는 관계와 이용한다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이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웃을 인격으로서 사랑하는 동시에 '사물'로서 이용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도 말하기를 이웃의 관계는 인간 관계와 물적인 관계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라 했지요.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 의식 속에는 늘 사랑의 관계와 이용의 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4. 크리스천의 생활

그런데 서로 이용한다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지 않는 데서 긴장과 대립이 생겨지며, 우리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돌이키는 일이 생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분열과 죄에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를 향하여 외치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서이겠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유비(analogia, 類比)라고 하겠읍니다.

K: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의식을 그런 견지에서 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관계에서 보고, 그러한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꼭 다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크리스천의 공동체 의식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해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찰하는 길, 둘째는 체험하는 길, 그리고 셋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유추(analogy)를 하는 일이겠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인식 과정으로써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면 의사가 와서 호흡, 순환, 신경, 이 세 가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죽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그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인식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다만 죽음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죽음을 확인했을 뿐이지요. 이렇게 '죽음'은 관찰이나 체험으로도 인식할 수 없으며, 또 유추로써도 알 길이 없어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비존재'(Non Being)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특히 공동체 문제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비존재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 넣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L: 크리스천의 공동체 의식 속에 그러한 존재에 대한 불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칼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면화되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K: 그렇게 지적인 인식으로써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비존재가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꼭 찾아오야만 한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인간을 '운명'이니 '허무'니 '불안'이니 하는 데로 몰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비존재 즉 죽음, 운명 등과 같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해 버리는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러한 비존재를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일입니다. 릴케라는 시인이 '말테의 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일 속에는 씨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그마한 어린이의 죽음, 어른에게는 커다란 어른의 죽음이 있었고, 또 부인들에게는 죽음이 배 속에 있고, 남자에게는 가슴 속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일종의 위험과 고요한 자부심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현대인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병명도 다 알아 내고, 다만 죽으니까 죽는다 하는 생각 뿐이고, 죽음의 불안, 죄의 불안, 무의미한 삶에 대한 불안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바쁜 세상에 누가 깊이 생각하겠느냐고 간단히 처리해 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L: 그러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K: 예, 두 번째 같은 태도는 이런 비존재 즉 죽음, 운명, 죄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 들어서 이에 힘을 기울여서 싸우는 태도인데, 그 전형적인 태도를 니체라는 사람에게서

4. 크리스천의 생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짜라투스트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묘사했지요. 어떤 양 치는 목자의 목구멍 속에 굵직한 뱀이 뚫고 들어가서 그 젊은 목자는 대단히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짜라투스트라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목자의 목구멍에서 뱀을 뽑아 주려고 했으나 도저히 빼낼 수가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깨물어라 깨물어!" 하고 외치니까 그 목자는 힘껏 그 독사를 깨물어서 뱀아 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뱀을 깨물어 이긴 젊은 목자가 갑자기 변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 가지고 빛에 둘러싸여;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보지 못한 웃음을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존재를 도피하지 않고서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가지고 이를 씹어버리는 태도인데, 결국 이런 일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나이체 자신이 미처서 죽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L: 기독교적인 견지에서, 죽음이라는 비존재를 회피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나이체처럼 도전하지 않고 받아 들이는 일이 결국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런 죽음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K: 크리스천의 공동 생활에서는 이러한 비존재나 죽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압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히 2:9). 결국 죽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죽음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닌 생활입니다.

□ 제 6 회 □

L: 오늘은 부요한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가 부요한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인 압력이 더 극심해진다는 것, 그리고 소비 의욕이 더 자극을 받아서 여기에 각가지 윤리 문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K: 경제 부흥에 따르는 문제는 농업 인구가 감퇴되고 공업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또 기술 부문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기술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면 평생 그 기술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트기 이전에 비행기 조종사의 기술 수명이 15년이었는데, 15년이 지나면 그 기술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과학의 발달하는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기술 수명이 짧아지고, 또 다시 새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L: 기술 사회에서 기술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꼭 역설적인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기술자 자신의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이 날로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의 기술자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었습니다만 현대의 기술자는 자신의 생산하는 부속품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서 기술자가 가지는 가치관은 자칫하면 무엇이든 빠르고 분량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K: 결국 경제적인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바쁜 생활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 생활을 우리는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먼비(D. L. Munby)라는 분이 '하나님과 부요한 사회'(God and Rich Society)라는 저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체제가 변해 가는 과정 속에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본회피

4. 크리스천의 생활

가 말한 '기독교적 세상성'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만, 이들은 본래적인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L: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적인 세속성과 이 세상의 세속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독교가 현대에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과 기독교적인 참여 의식에서 하는 경제 활동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K: 표면상에 나타난 차이점을 찾는다는 것은 도리어 문제를 잘못 찾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면상에 나타난 것으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다른 점을 찾으려면 경제적인 활동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경제적인 추구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는, 결국 인간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은 늘 참여 정신이 앞서야 합니다. 참여 정신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자칫하면 참여 정신을 어떤 사회적인 일, 정치, 경제에 관한 활동을 한다는 행동면에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참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행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여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 사회적인 부담을 함께 지고 책임적인 생활을 하느냐 하는 데 참여의 근본 정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L: 한국에서는 크리스천이 세속적인 일을 언제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다루어 왔기 때문에 참여라고 하면 으레 크리스천이 정치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반사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정신은 어디까지나 마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참여 정신인지 좀 더 따져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K: 예, 한국의 현실 상황에서, 크리스천의 참여 정신은 제일 먼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을 내쫓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 '가난'을 내쫓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첫째는 무엇이 가난이나 하는 것부터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 가운데는 '가난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 자체보다, 이 가난의 정신이 더 근본적이며 긴박한 것입니다.

L: 그 '가난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같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기보다, 가난한 정신 때문에 가난하다면 그것이 더욱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K: 가난의 정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공짜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비생산적인 성격 가운데서 맨 먼저 지적한 것입니다. 늘 남에게서 받아 들이는 성격, 남에게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하는 성격입니다.